5월 23일(월) / 시107-108

▶내용요약: 107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한다. 시인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여러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에 그의 백성은 그에게 호소하고 간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108편은 다윗이 절망 중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대적을 물리쳐주는 분임을 노래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   )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107편)

▶생각하기: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백하기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108:2)고 찬양한다.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새벽부터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하루의 시작을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하루.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5월 24일(화) / 시119

▶내용요약: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8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를 사용하여 총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시이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오묘한 진리이며 이를 얼마나 자신이 사랑하는지를 고백한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이러한 갈등을 통해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더욱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심을 한다.

▶질문: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119편)

▶생각하기: 119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시인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지 않은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119:18)라는 시인의 호소처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5월 25일(수) / 시120-123

▶내용요약: 120편은 환난 중에 화평을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121편은 시인이 자신을 지키고 도우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한다. 122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위치한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위해 기도한다. 이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123편은 시인이 당하는 심한 멸시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질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주기를 기다리는가?(123편)

▶생각하기: 121편에서 시인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121:4)고 고백한다. 얼마나 위급하고 절박했으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확인하며 고백할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박한 문제에 처해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자!!!

5월 26일(목) / 잠1-3

▶내용요약: 잠언의 핵심어는 지혜와 진리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1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악한자의 유혹을 피할 것을 권면한다. 2장은 지혜를 찾는 방법과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3장은 솔로몬이 젊은 아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으로 장수와 평강의 비결, 재물을 얻는 방법 등 실생활에 유익한 여러 삶의 원리들을 제시한다.

▶질문: 진주보다 귀하며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3장)

▶생각하기: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권면하기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3:5-6)고 한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범사에 그 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5월 27일(금) / 잠4-6

▶내용요약: 4장은 지혜를 얻으라는 간곡한 부탁이 반복되면서 의인의 일과 악인의 길을 대조한다. 또한 지혜로운 자가 행해야할 것들을 권면한다. 5장은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여 간음하지 말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교훈이 나온다. 6장은 게으르고 악한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또한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말씀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질문: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은 무엇인가?(4장)

▶생각하기: 솔로몬은 실제적인 삶의 지혜들을 언급하면서 게으른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6:6)고 한다. 그는 개미가 여름에 매우 분주하게 양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게으른 자들의 특징으로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어떤 게으름이 있는가?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군들이 되자!

5월 28일(토) / 잠7-9

▶내용요약: 7장은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할 것과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권면한다. 하나님 사람들은 정욕을 다스리고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8장은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복을 언급하면서 지혜의 내용과 가치, 지혜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 9장은 지혜를 사람으로 비유하여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계집의 초청을 대조한다. 결국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   )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9장)

▶생각하기: 솔로몬은 9장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어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는 비유를 든다. 이 비유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으로의 초청을 먹고 마시는 잔치로 비유함으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알려준다.

5월 29일(일) / 잠10-12

▶내용요약: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는 잠언의 2부로 볼 수 있다. 그 첫장인 10장부터 12장까지는 모두 대구법으로 구성된다. 10장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구절로 시작하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실생활에서 대조하며 교훈을 준다. 11장도 대구법이 이어지는데 의인과 악인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교만의 결과, 겸손한 자의 특징, 재물이 심판 날 무익한 이유등이 기록된다. 이를 통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궁극적인 보응이 있음을 알려준다. 12장 역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가야할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공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고 오직 생명만이 있다.

▶질문: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와 대조하여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고 하는가?(12장)

▶생각하기: 솔로몬은 대구법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대조를 통해 보여준다. 현재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시간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악인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명심하자!!!